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7월 7일(주일) 제1253호



신트로피 드라마는 계속 된다

“고 김영길 장로, 영원한 안식으로”

온누리교회 1호 장로이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장로(강남A공동체)가 지난 6월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지난 2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김영길 장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유가족, 온누리교회 리더십,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등 조문객 1천여 명이 참석해 김영길 장로의 천국 가는 길을 배웅하며 애도했다.

김영길 장로 천국환송예배는 박종길 목사의

인도, 정진호 장로의 기도, 장로합창단 조가(弔歌), 이재훈 목사 말씀,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신트로피 드라마’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은 김영길 장로님의 인생을 이 땅의 법칙(엔트로피 법칙)이 아니라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받는 드라마로 연출하셨다”며 유가족과 추모객들을 위로했다.

전성현 씨(한동대 졸업생)는 “총장님은 모든

학생들이 ‘나를 편애하신다’고 느끼게 만들 정도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대해주신 분”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신웅 목사(열바인 온누리교회)는 “김영길 장로님을 영원히 마음에 품고, 그분의 믿음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길 장로는 온누리교회 1호 장로이다. 1987년 장립됐다.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故 하용조 목사의 말에 가장 처음으로 순종한

성도이기도 하다. KAIST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1995년 2월~2014년 1월)했다. ‘공부해서 남 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세상을 변화시키자)’를 모토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과 혁신적인 커리큘럼으로 한동대학교를 단시간에 기독교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켰다. 2016년 6월부터는 한동대 명예총장을 맡아 대학 발전에 매진해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 ‘FA 17기’ 참가자 모집

서류마감 1차 7월 18일, 2차 7월 25일

대학청년부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 FA 17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FA는 ‘Frontier Agency movement’의 약자이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1년 이상)이자 대학청년부 공동체에 6개월 이상 소속된 청년으로 35세 이하(85년생 이하), 미혼, 세례교인, 해외거주 결격사유 없는 자, 공동체에 헌신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자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추천서 3부(온누리 목회자, 공동체리더십,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서(유효기간 3개월 전)이다. 신청양식은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마감은 1차 7월 18일(목), 2차 7월 25일(목)까지다. 면접은 1차 7월 27일(토), 2차 8월 2일(금)에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은 8월 3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합숙훈련 전에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하용조 저/두란노)를 읽어야 한다. 합숙훈련은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되고, 훈련비용은 40만 원이다. 훈련을 모두 마치면 9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9주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된다. 파송국가 는 네팔, 인도네시아, 일본이다.

문의: 070-4464-8105, fa@tim.or.kr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9-62805

(FA무브먼트)

오늘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오늘(7일)은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주일이다. 오늘 수원 온누리교회 2부, 3부 예배에서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축하 영상 상영, 16주년 기념 영상 상영,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국내 두 번째 창립된 캠퍼스 교회다. 신기섭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김영길 장로 천국환송예배 메시지

신트로피 드라마

이재훈 담임목사
(온누리교회)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면서 태어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탄생을 기뻐하며 웃으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

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울면서 떠나면 안 됩니다. 기쁘고 환한 소망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며, 진정한 통곡으로 떠나보내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김영길 장로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내세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정, 교회, 학원에서 어떤 위치나 직분이 주어져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의 영향력은 겸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예수님을 닮은 영성에서 그 영향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가족들에게 나를 높이 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간곡히 부탁하셨던 귀한 어른이셨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축복은 교회를 창립한 하용조 목사님과 김영길 장로님 같은 순수한 겸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귀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초대 리더십들이 자신의 위치를 권력으로 내세우며 기독교를 주장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반성경적인 리더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했습니다. 노후가 보장된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포항의 작은 마을에 한동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어진 비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헌신을 가지고 정직한 모습으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건강이 다 무너지셨을 때도 ‘유엔아카데미팩트’를 통해 ‘반기문 글로벌교육원’을 창립하는 일에 그 모든 마음과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대개 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김영길 장로님은 세계를 향해서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동대학교에서 경험한 대학교육의 실전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

수 있을지, 그 마지막 꿈을 불태우며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

장로님의 삶은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연출하시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공인도 인터뷰를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좌절과 삶을 경험한 이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인생은 우리가 기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신트로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과학법칙인 엔트로피 법칙과 반(反)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연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점차 소멸하고 쇠퇴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점점 죽음으로 소멸되어 갑니다. 하지만 김영길 장로님은 세상에는 엔트로피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트로피 법칙도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학자들의 증거도 제시하셨습니다. 신트로피 법칙은 우리의 인생이 소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에서 생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신트로피 법칙은 실제 역사와 자연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소멸되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멸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신트로피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는 것입니다. 썩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씨앗은 썩었지만 썩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이 새로운 식물과 열매로 변화되는

님은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도 신트로피 드라마에 속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만물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물이 썩어지고 점점 소멸되어지고 에너지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장차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만물이 썩어짐으로, 소멸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만물의 구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없습니다. 다시는 시험이 필요 없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락이 없고, 저주, 밤, 어둠이 없는, 영원히 밝게 빛나는 동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요한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바로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앞에 누워 계신 장로님은 소멸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몸을 입고 만물이 새롭게 구속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은 분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는 ‘After Life’가 아니라 죽음 이후가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Before Life’로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로님은 81세만 살려고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받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넘어서 하늘의 기쁨을, 이 모든 아픔을 넘어서 소망으로 장로님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떠나심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함께 천국의 환송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착하는 공항이 있듯이, 수평선 너머의 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지만 도착하는 항구가 있듯이 우리 눈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육신의 이별이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신트로피 드라마가 완성된

새 하늘과 새땅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로 연출하시고, 기획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드라마가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의 뒤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위대한 드라마로 바꾸십니다. 밋밋한 드라마는 흥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감동을 주는 드라마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고, 극한의 한계가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믿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과 다른 드라마입니다.

장로님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쓰신 책 <신트로피 드라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

는 것입니다.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엔트로피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지구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지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고,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위대한 신트로피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허락됨으로 우리도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신트로피 드라마를 믿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전에도 “나는 죽어도 삽니다”라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See You Tomorrow”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내일 만날 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김영길 장로

추모사

故 김영길 장로님을 추모하며



이재규 장로
(동대문중랑공동체)

저는 김영길 장로님을 KAIST 선배 교수와 온누리교회 선배 장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같이 가지 못한 미안한 후배입니다.

지난 2001년 김영길 장로님이 억울한 옥고를 치루시는 중, 성령의 이끌림으로 위로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랑하는 따님 종민이를 먼저 떠나보내셨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는 편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돌아보며 김영길 장로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감옥에 계신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이었습니다.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계신 김영길 선배님
당신이 고초를 받고 계신 것조차 부러워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살갓의 아픔은 영혼의 기쁨으로 이길 것으로 믿기에
당신의 영혼을 부러워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제가 KAIST 교수로 온 소싯적에
신소재공학과와 김영길 교수님은
한국을 대표할 세계적 학자라고들 합디다
학자로서 부러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없이 얻을 수 없는 연구결과가
은혜로 주어진다기에 더욱 더 부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 헤맸 때
창조과학회를 섬기시는 충성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구름에서
봄날 진달래 꽃잎과 가을 노란 은행잎에서
그리고 나의 호흡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계셨으나
그 증거에 앞장선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당신이 장로로 섬기는 온누리교회의
새신자 된 저는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낙인임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외치는 그 모습에서
나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이셨습니다

삭막한 과학의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던 당신께서
느닷없이 한동대학교로 가야만 한다면 그 모습
그 길은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 받은 학자요 연구자이지

행정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아끼던 발자욱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시던 그 모습과 그 기도.
그 순종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 계셔서 부럽습니다

노랗 돈 때문에 찌들리는 대학을 맡아서도
늘 히죽히죽 웃으시니
보는 제가 오히려 걱정됩니다만
그런데도 한동대는 우뚝 서는 것을 보니
김영길 총장님의 역할은
스스로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꽃대 된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집요한 모함과 음모로
당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무리들이
드디어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 기뻐하니
아, 가소롭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신 대가로 치르는 고초가
당신을 얼마나 값지게 할지.
당신의 죄로 말미암지 않은 고초이기에
그 억울함을 부러워합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영원히 아름답게 빛을 것이므로

스승이 없다는 스승의 날이면
늘 부끄러운 제 모습.
그러나 감옥 속의 참 스승을 찾은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
연구 업적 평가에 매여
나의 것을 쥐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더 부끄러워지며
학생의 사랑받는 스승 총장 된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시작된 가정
그 가족과 함께 밥 먹고 물 마심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김영애 권사님
그분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계속되기에
그 사랑받는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고초의 나날을
그냥 지켜보시는 듯 하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이 시련을 매듭지으실 하나님
한순간도 멈추심 없이
당신의 고초가 안타까워
내 가슴에 눈물 흘리십니다.
그 사랑 받으심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혹시 이 고초를 못 이길까
늘 위로코자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기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고초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깊은 만남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위로 받기에 충분하시지만
그러나
저의 작은 사랑과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는 인간으로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하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고초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심을 부러워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001년 전한 편지였습니다. 그 후에 김영길 총장님은 무죄방면 되셨고, 2014년까지 19년 동안 한동대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 받은 평안한 노후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장암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또 상상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딸 종민이가 갑자기 병을 얻고, 아빠 걱정하실까봐 말조차 하지 못하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부러워할 수도 없는 이 일들... 위로가 불가능한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부러워한다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편지를 또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온전히 믿는 자녀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알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에서
김영길 장로님과 김영애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조상 되신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과 부활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별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떠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며
떠나시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루신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천국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시고
종민이도, 하용조 목사님도 계시니 좋으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별을 슬퍼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 것 같이
남은 가족에게 주님께서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김영길 장로님의 일생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같은 시대를 살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유가족 인사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김영애 권사
(김영길 장로 아내)

김영길 장로님이 4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난 참 행복했다. 내 일생을 참 만족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안 이후로 내 삶은 항상 감사로 넘쳐났다. 죽음은 기쁨이다. 죽고 나서 우리는 다시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니까. 그래서 죽음은 기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슬퍼하거나 울지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나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라고 물으니 “이전처럼 복음 전하다가 오면 되지. 우린 다시 만나는 거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대구 감옥에 계실 때 면회를 갔더니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지금쯤 힘들 때가 됐겠다 싶어 “여보 많이 힘들죠?”라고 물었더니 “아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찬송가를 부르다가 ‘사랑의 종소리’를 찾았다. 이것을 내가 ‘한동의 종소리’로 개사했다. 우리 한동인들이 이렇게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기를 바란다. 내가 나가면 우리 한동인들과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싶다.”

김영길 장로님은 이 찬송을 한동대 학생들이 오래오래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스쿨 앞마당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영어와 한국어로 돌아가면서 한동의 종소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천국에 계신 김영길 총장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소

원입니다. 또 김영길 총장님은 한동인들이 아 웃리치를 떠난다 하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4년 동안 한동대 재학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가서 세계를 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체장암 4기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 목적지금으로 받은 땅이 팔렸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회사를 찾다가 바로 두 달 전, 호치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우리 동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그 학생들이 큰 회사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 와서 건물을 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조금씩 남는 이익금으로 캄보디아에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개, 2년제 대학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때 동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니?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랬더니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 했습니

다.

“공부해서 남 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는 우리 한동의 자식들, 제자들, 아들들을 보면서 김영길 장로님은 투병 중에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즐거워했습니다. 한동대학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존재 이유이자 가치입니다. 한동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결국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동인들, 졸업생들, 동문들, 직원선생님들, 교수님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장로님을 만났을 때 칭찬 받는 한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모글

“내 존귀한 자”



김정숙 목사
(삼성 서울병원 원목, 온누리호스피스 담당)

온누리교회에 영적으로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95년 1월 삼성 서울병원으로 파송 받기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강단에 서 있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나를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하여 나를 이끌어 주신 장로님들이 계셨다. 김종인, 김내현, 윤현덕 장로님과 함께한 중국 사역(BEE사역)은 정말 잊을 수 없다. 장로님을 옹호, 과장님, 선생님이야 불러야 하는 삼엄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었다. 중국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장로님들이 계시니 든든했고 모여 있는 중국 지도자들과 성경 공부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들이었다.

오래전 한동대 재플 설교를 간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짜퉁’이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성탄 이브 저녁에 송정미 찬양 집회에 환우 청년들을 데리러 가는 중에 한 청년이 명동 길가에 줄지어 진열된 지갑, 가방, 허리띠를 들여다보며 “이것도 짜퉁 저것도 짜퉁이네”라고 말했다. 나는 짜퉁이 명품의 이름인줄 알았다. 짜퉁이라는 이름을 외워 와서 조카에게 물었다. 조카가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이모, 짜퉁이 가짜인 것 몰라?” 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나는 한동대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를 주

제로 설교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서 중요한 부분이 영적 건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짜퉁 신앙’을 비유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부족한 나의 설교를 기뻐하며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 김영길 장로님의 미소를 잊을 수 없다.

김영길 장로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6월 29일 오전 11시) 권명자 권사님과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는 몇 분이 먼저 와 계셨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일행들이 장로님 손을 잡으시고 나는 장로님의 발을 만지고 있었다. 장로님의 발을 잡는 순간 서빙고 온누리교회 강단에서 계실 때 본 자애로운 미소가 스쳐 가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졌다. 그 눈물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내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다. 세계를 돌면서 주님을 전하셨던 장로님의 모습과 삶이 기도로 장로님의 귀와 가족과 둘러선 이들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순수하시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성도님 사랑을 실현 하셨던 우리의 영적 거장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떠나는 슬픔이 너무 크지만 남은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슬픔을 이기고 먼저 가신 장로님들의 삶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천국에 가 계신 장로님들이 그리울 땐 하늘을 쳐다본다. 밤하늘에 빛나는 보석 같은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든든하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며 기도하실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온라인 추모글

총장님 가르침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God loves you! / soon u

한동대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서 세상을 바꾸는 영성, 지성, 덕성을 겸비한 대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 이경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세운 한동대를 위해 온힘 다해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한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hj J

주님의 소명을 다하신 총장님을 존경합니다. 한동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총장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 한지수

한 번도 만나 빈 적이 없지만 총장님의 노고와 사랑과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총장님이 사랑한 한동대가 말씀의 기초 위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기도합니다. / 윤옥이

총장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누구도 총장님처럼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 장인자

총장님 말씀대로 한동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총장님께 배울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천국에서 뵈겠습니다. / 박용국

총장님! 총장님을 이 세상에서 만난 건 주님이 주신 축복 중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 한동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이곳저곳에서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겸손과 미덕은 너무나 최고였습니다. 벌써 총장님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총장님. / sm lee

평생의 달려갈 길 겸손히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마치신 총장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훗날 다시 머리 쓰다듬어 주실 날 기대하며 박수로 환송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총장님. / Hunsu Kim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7가지 치명적인 죄(2) - 시기

고린도전서 3:1~8

“우리가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할 수 있다면
세상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않아도,
시기만 마음속에서 제거된다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입니다. 이 영화는 모차르트를 다루지만 실제 주인공은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궁정악장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살리에리는 훌륭한 음악가요, 왕에게 인정받는 궁정악장이지만,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시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도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려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 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삼상 18:8-9).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거짓으로 선동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동기도 시기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마 27:18).

시기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교회의 분열, 다툼, 문제 속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분열이었는데, 분열의 이면에는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시기’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3~4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파를 형성했던 이유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기심, 욕망, 교만 등이 시기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잘 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에 있지 말아야

할 미움이 일어난다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시기심도 무섭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시기심은 너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시기심이 파고 들어오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지만 시기심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시기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정반대로 정의해도 맞는 말입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군가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동일하게 기뻐할 수 없다면 그만큼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슬퍼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시기심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끔찍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순간적, 일시적이거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만도 즐겁습니다. 자기도취도 즐겁습니다. 쾌락, 탐욕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전혀 즐거움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파괴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이면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젊은 신부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등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부는 일반적인 말을 했지만 살리에리는 그 말에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켜왔는데, 제멋대로 사는 모차르트가 천부적인 재능으로 자신보다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연료가 무엇입니까? 평등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나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 정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면 시기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평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등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누리는 좋은 것은 나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과 좋지 않은 것은 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나도 동일하게 누려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성취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에리에게 “너는 왜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모욕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불행처럼 여겨지고, 점점 우울해질 때 시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기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요, 모독이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다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반항, 분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고, 살리에리의 문제였습니다.

시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 회개, 창조 의식, 축복

어떻게 해야 무서운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시기심 하나부터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시기심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 분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십시오. 축하할 수 없다면 그만큼 내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일 지라도 한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시기심을 회개한 마음입니다.

둘째,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 의식을 가져

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거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나라면 할 수 있었던 것, 주어진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다른 이를 축복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의 바울파는 아볼로파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볼로파는 게바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교만한 파는 그리스도파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목회자가 필요 없고, 일대일 양육자, 순장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 같지만 가장 무서운 분파입니다.

사울이 만일 다윗을 축복했다면, 승리를 함께 기뻐했다면, 그는 추악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시기해서 모세에게 금지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야단칩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와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란다’”(민 11:29).

모세의 멋진 믿음입니다. 시기심은 사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심에 문을 열 때 마음에 사탄의 쓰레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기는 분노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죄, 시기가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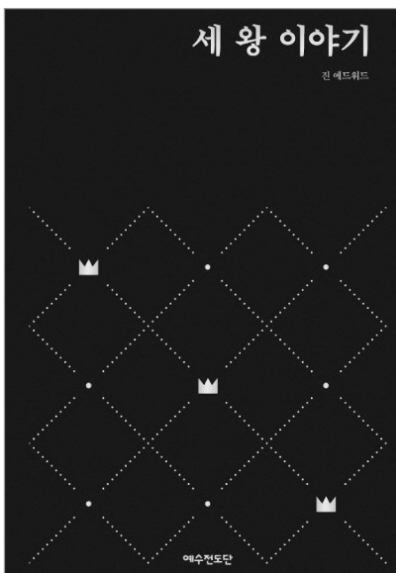
우리가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할 수 있다면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더 만족스럽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않아도, 시기만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된다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믿음의 수동성을 극한의 능동성으로



〈세 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 저 | 예수전도단 | 9,000원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의 기쁨처럼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반가움의 미소가 절로 나왔다. 1994년 처음 발간된 〈세 왕 이야기〉는 분량은 짧지만 깊은 통찰력과 긴 여운을 남기는 좋은 책이다.

저자는 권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혼란 가운데 있거나 신앙생활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 어디선가 소망과 위안의 한 마디를 갈급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워했다.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는 작은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책의 부제가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다.

표지의 타이틀처럼 책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세 명의 초대 왕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개척한 사울이다. 그는 특별한 준비 없이 기쁨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훈련과 깨어짐의 과정이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권력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두 번째는 다윗이다. 그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호된 광야의 훈련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한다. 광야의 시간과 환경은 다윗이 다른 왕들과 비교 되는 차이를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압살롬이다. 왕자라는 신분과 그가 가진 재능, 리더십으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 다윗의 왕국에서 새로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꿈꿨던 젊은 왕이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지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날아오는 창을 경험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울이라는 조직과 시스템으로부터의 창, 압살롬이라는 사람과 사건으로부터 날아오는 창을 경험한다. 창이 날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는 날아오는 창에 시선을 빼앗긴다. 똑같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기에 내면의 분노를 어쩔 수 없이 인내라는 무거운 돌로 누르며 다음 창을 던질 기회를 노린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요압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역시 사울 왕처럼 행동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사울 왕과 똑같이 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p.51)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는 사독에게 이렇게 말한다.

“왕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내고 유지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의지 사이에는 어떠한 방해물도 있어서는

안 되며 나 또한 절대 끼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즉시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되옵소서!”(p.126)

저자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수동성을 말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믿음의 수동성을 극한의 능동성으로 전환하며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날아와서 상처를 주는 창은 권력이고 힘이다. 이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이해와 인내, 용서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나타난 통치 자세와 믿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 사랑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누구나 권력의 창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갖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바란다.



조병홍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옆집에 사는 교인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답: “‘병원은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가는 곳이지요.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정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의인(기준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교회의 구성원이나 리더들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전도 현장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그렇게 묻는 이들의 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으며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분개했다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러시군요. 속상하시지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런데 그런 사기꾼(위선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

서 장사하는 사람들(사기꾼)을 보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분개하셨습니까”(마 21:12-13).

이처럼 이들의 말에 동조한 이후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 해준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기꾼(위선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인(위선자)입니다. 자기 사업이나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교인은 교인이지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더라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들은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위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숙한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가장 좋다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믿음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고 심지어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기준(본)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교회의 기준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보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동굴에서 어렵게 보물을 찾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보니 보물 옆에 동물의 배설물 등 오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물 때문에 보물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물 찾으러 다닌 사람의 목적은 오물이 아니라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오물이 있어도 보물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평소 싫어하는 음식이 앞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피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머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음식점에 간 목적은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대기실에 환자들이 가득 있다고 ‘이 병원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이 있지?’ 하고 그냥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를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고 나옵니다. 병원에 간 목적이 환자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만나 치료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가는 목적은 선생님이 만났다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보물 같고,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며,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 받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경문 장로
(양천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간사”

간사수련회, 국내 10개 캠퍼스 120여 명 참석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간사들.

2019 간사수련회가 지난 7월 2일과 3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간사’를 주제로 강원도 평창 화이트호텔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간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프닝 예배에서 이준호 목사(목회행정)는 “사랑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는 간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기원 목사(서빙고 목회기획 담당)는 간사들을 대상으로 ‘관계기술 훈련’을 실시했다. 감사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 자신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방법, 관계회로를 가장 빨리 걸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승자 간사(한누리탈북센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 감사하다”며

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로 채워주신 수련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춘녀 간사(안산M센터)는 “함께 일하는 간사님들과 업무를 떠나 좋은 환경에서 개인적인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어 즐겁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낙태죄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7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대회의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 의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낙태에 대한 의학적, 법조계,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낙태죄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7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성산생명

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하고,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주최한다.

낙태죄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홍순철 교수(고대 산부인과),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대)가 발제하고,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등이 토론한다.

한국어교실 및 여름수련회 물품 모집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에서 한국어교실과 여름수련회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어교실에서 사용할 의자 20개, 전기밥솥 2대, 냉온풍기 1대, 전자통기타 1개, 여름수련회 바비큐 파티에서 쓸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40kg 등이 다.

문의: 010-6343-7588

영월 목회자 및 사모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일대일위원회 대외사역팀과 사역장로회 주관

일대일위원회 대외사역팀과 사역장로회가 강원도 영월 지역 목회자 및 사모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과정이 지난 3일(수) 끝났다. 일대일위원회 대외사역팀과 사역장로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8주 동안 영월대교회에서 일대일제자양육 목회자반, 영월영락교회에서 사모반을 진행했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에 참여한 목회자 및 사모 17명은 ‘간힌 자를 돌아보라’ (마 25:34-40)는 말씀에 기초해서 영월교도소 수용자들과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되기 위해 훈련 받았다. 영월 지역 교정선교교회 교정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권영석 장로(성동광진공동체)는 “김종건, 김재욱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양육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영월 지역교회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영월교도소는 물론이고, 성도들에게도 일대일제자양육을 전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영월 지역에 일대일제자양육과 큐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8시간이면 나도 크리스천 유튜버’

유튜브 방송제작 세미나, 7월 30일~8월 6일

온누리교회 IT지원팀이 주최하는 유튜브 방송제작 세미나 ‘8시간이면 나도 크리스천 유튜버(이하 크리스천 유튜버)’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2호에서 진행된다.

크리스천 유튜버에서는 방송선교 개요, 방송 기획, 촬영, 편집, 유튜브

등록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개인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강사는 차순표 대표(광고대행사 창의력공장)다. 방송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7월 28일까지 이메일(creafac.no1@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2638-231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

사랑부 교사 강습회 ‘드림플러스’

지난 6월 29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사랑부(장예인 예배공동체) 교사들을 위한 여름캠프 강습회 ‘드림플러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을 주제로 열렸다. 온누리교회 사랑부(서빙고, 양재, 부천, 인천) 교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일 총무(양재 사랑부)는 “이번 캠프를 통해 사랑부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

대한다”고 했고, 이루주 전도사(양재 사랑부)는 “강습회 교재부터 공과 도구까지 일일이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6월 21일~22일에는 사랑부 부모들을 위한 ‘기쁨플러스’ 4기가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됐다. 사랑부 부모 28명이 참석했다. 기쁨플러스는 자녀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기 힘든 사랑부 부모들을 위한 장애인사역본부의 부모지원 프로그램이다.

/ 정현주 기자

2019 여름사역 간증 및 사진 공모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온누리신문에서 ‘2019 여름사역 간증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여름사역에서 받은 은혜를 담은 글과 사진을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실어준다. 간증, 사진(사역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원고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 내외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청, 사역팀 아웃리치, 차세대 여름캠프 등지에서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담은 글이 좋다. 단체사진보다는 역동적인 사역 장면을 담은 사진이 좋다. 문의: 02-3215-3194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6213	곽하늘	허브	1136250	이효림	하나	1136282	이수형	하늘	1136309	장현동	SNS
1136214	김재욱	수원 남누리	1136251	최수진	분당A	1136283	김산성	하늘	1136310	김은하	SNS
1136215	한선자	양지 동누리	1136252	송대섭	수원 남누리	1136284	김의진	하늘	1136311	이희재	SNS
1136216	윤상현	양지 동누리	1136253	남희자	수원 남누리	1136285	정신운	하늘	1136312	이보라	SNS
1136217	곽경열	신용산	1136254	이복희	수원 남누리	1136286	이주은	하늘	1136313	박계성	SNS
1136218	이석기	부천 희락	1136255	강혜정	하늘	1136287	김준석	하늘	1136314	박태윤	SNS
1136219	임고은	평택	1136256	정 훈	인천 소망	1136288	김동호	하늘	1136315	김석진	양지 동누리
1136220	박민경	성동광진	1136257	김경숙	부천 희락	1136289	박태섭	양재	1136316	이종운	웅산
1136221	계승모	신용산	1136258	윤윤아	대전 동누리	1136290	장진향	수원 남누리	1136317	한만서	분당B
1136222	김경은	여호수아	1136261	박지영	인천 소망	1136291	민수홍	양재 특활한초대	1136318	김영미	부천 화평
1136223	정경희	여호수아	1136263	육근영	도곡	1136293	김동욱	허브	1136319	유영일	이촌
1136224	박하늘	여호수아	1136264	박선미	서대문	1136294	홍성지	허브	1136320	김형숙	이수
1136225	최유나	여호수아	1136268	공현선	수원 남누리	1136295	박은호	허브	1136321	곽금순	양천
1136228	김도연	여호수아	1136269	김수연	강남C	1136296	윤양균	허브	1136322	서경화	평택
1136229	김민조	여호수아	1136270	박혜정	분당B	1136297	장재영	Gil	1136323	김대환	평택
1136231	신은경	여호수아	1136271	전소영	관악금천	1136298	황서영	SNS	1136324	이민경	송파A
1136237	함지영	여호수아	1136272	수원 서누리	수원 서누리	1136299	윤성광	SNS	1136325	임재영	송파A
1136238	이경주	여호수아	1136273	김남덕	하늘	1136300	이유진	SNS	1136326	선우인수	부천 사랑
1136239	김설아	여호수아	1136274	최서현	하늘	1136301	이연주	SNS	1136327	이미주	부천 사랑
1136240	김은채	여호수아	1136275	김지영	하늘	1136302	전은지	SNS	1136328	김수진	여호수아
1136241	이주양	여호수아	1136276	이의섭	하늘	1136303	안진우	SNS	1136329	김병규	여호수아
1136242	곽 건	여호수아	1136277	최영환	하늘	1136304	이성민	SNS	1136330	나우중	여호수아
1136243	김태영	여호수아	1136278	김현홍	하늘	1136305	김준현	SNS	1136331	강지혜	여호수아
1136244	박상욱	수원 서누리	1136279	김주한	하늘	1136306	김찬미	SNS			
1136245	최영민	도곡	1136280	공재섭	하늘	1136307	김지희	SNS			
1136246	이민호	인천 소망	1136281	이하은	하늘	1136308	박소현	SNS			

